

# 종이인형에 담긴 민족의 혼, 78세 리현순의 13년 기록

## — 중국 조선족의 100년 이주사·문화사 생생하게 재현



### 한뫼한뫼 정성으로 기록한 민족의 발자취

“한뫼한뫼 정성을 기울여 만든 종이인형들이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 이 작품을 보며 우리가 걸어온 길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연길시 신애상백화점 2층에 마련된 ‘흘러간 세월을 뒤돌아보며’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은 작은 종이인형들이 만들어내는 아기자기하고 생동감 넘치는 장면에 발걸음을 멈춘다. 이주민들이 황무지를 개간하던 때의 고달픈 일상, 일제에 맞서 싸우던 항일의 역사적 순간, 자치주 창립 경축 행사의 순간까지... 중국 조선족의 100년 이주사와 생활사가 고스란히 담긴 30여점의 종이인형 소품들은 마치 살아있는 역사교과서와 같았다.

이 모든 작품은 연길시아리랑문화활동중심을 운영하는 리현순(78세) 할머니가 13년에 걸쳐 정성껏 수작업으로 만들어낸 결과물들이다. 할머니는 “나라 사랑, 민족 사랑, 고향 사랑, 부모 사랑, 가족 사랑, 이 다섯가지 사랑을 주제로 종이인형에 중국 조선족의 역사를 담아내고 싶었다.”고 말한다.

### 종이인형과의 만남, 생생한 교육 주제로 각광받다

리현순할머니가 종이인형을 처음 접한 것은 1997년 한국에 갔을 때였다. 어느 날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한지’를 주제로 만드는 인형을 보고 한지의 질감과 독특한 느낌이 돋보이

는 이 전통 공예품이 생동감 있고 직관적인 교육을 재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지인형은 기본적으로 한지에 인형의 얼굴, 몸통, 옷 형태를 그려 재단한 뒤 접착제로 조립하고 얼굴을 그리거나 간단한 장식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만든다. 그러나 당시 한지인형 만드는 법을 배우려고 했지만 한화로 무려 100만원이 넘는 교육비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2005년 귀국후, 리현순할머니는 독학으로 종이인형 만들기에도 도전,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2년의 노력 끝에 종이인형 만들기에도 성공했다. 특히 종이인형의 기본 틀을 만들기 위해 신문지를 몰에 짓이기고 굳이지기 전에 밤낮이 따로 없이 지속적으로 다듬어야 했다. 밤잠을 설치며 무려 200개가 넘는 실재작을 거쳐 마침내 제작 비법을 터득했다.

중국 조선족 100년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 리할머니는 또 중국 조선족 역사 공부도 여러해 동안 꾸준히 했다. 신문과 잡지에서 24권 분량의 자료를 스크랩하며 필요한 내용을 철저히 연구했다.

### 100년 이야기를 담은 종이인형

‘흘러간 세월을 뒤돌아보며’ 전시 작품들은 중국 조선족의 이주, 개척, 교육, 항일투쟁, 자치주 창립, 개혁개방 이후의 변화 등 중요한 역사적 순간들을 세밀하게 재현하고 있다. ‘개척’ 장면에서는 짚으로 엮은 움막집 앞에서 땀 흘리며 황무지를 일구는 부부의 모습이 고난과 인내를 동시에 전한다.

배경의 영진 나무가지와 마른 풀뿌리까지 세밀하게 표현되어 당시의 고난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탁구 장면에서는 실제 배와 배알을 사용해 현실감을 극대화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렇게 황량한 땅을 살기 좋은 삶의 터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고난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리현순할머니는 작품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어 말했다.

리할머니는 사라져가는 민족 풍경도 기록했다. 작품에는 이주사뿐만 아니라 현재는 거의 볼 수 없는 전통 생활 풍경까지 고스란히 담겨있다. 물레로 실을 뽑는 모습, 작두로 여물을 만드는 장면, 절구방아와 매돌 돌리기 등 조선족의 일상적인 민속생활습관까지 세심하게 재현했다. 이는 단순한 공예를 넘어 민족문화 원형을 보존하는 가치 있는 기록물이다.

리할머니의 작품은 신애상백화점 외에도 연길경제개발구내에 자리잡은 해일국제세포은행에도 전시되어 있다. 이곳 작품들은 조선족 어린이들의 민속놀이, 개혁개방 이후의 현대생활 모습 등을 반영한 40여점의 소품으로 민족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어 가치를 한층 더 인정받고 있다.

### 교육 현장으로 확산되는 문화

리현순할머니의 작품은 단순한 전시를 넘어 교육 현장에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2012년부터 리할머니가 제작한 종이인형 작품들은 백산호텔, 연변박물관, 북경민족문화궁 등 다양한 장소에서 전시되었으며 특히 연길

시의 23개 중소학교에 전시되어 학생들의 생생한 교육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더 나아가 연길시 교육실천기지과 여러 중소학교, 가두와 사회구역들에 ‘종이인형 공예 체험 교실’이 설치되어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직접 종이인형을 만들며 중국 조선족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종이인형 공예는 생생하고 직관적으로 전달되는 이야기 덕분에 뛰어난 교육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 “역사를 모르면 미래도 없다”

리현순할머니는 “조상들의 시련과 고난에 찬 아픈 과거가 있었기에 비로소 오늘의 행복이 있다.”고 강조하며 “젊은 세대들이 종이공예 작품을 통해 조상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리할머니의 손끝에서 태어난 수많은 종이인형들은 단순한 공예품이 아닌 민족의 영혼을 담은 문화유산으로, 파란만장한 역사의 증언자로서 끊임없이 역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와 학생들은 할머니의 작품을 통해 과거의 고난과 현재의 소중함을 체감하며 민족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깨우치고 있다. 전시장을 찾은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책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선조들의 삶을 직관적으로 생생하게 느껴 쉽게 공부하게 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리할머니의 손길이 빚어낸 각각의 인형과 장면들은 이제 단순한 공예품이 아닌, 중국 조선족의 집단 기억을 담은 문화 보물로 미래 세대에 용기와 자부심을 전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었다.

리할머니는 종이인형 제작 기예를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끝나지 않는 기록,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

취재 당시에도 리현순할머니의 종이인형 작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리할머니는 “앞으로도 우리 민족의 중요한 순간들을 계속 기록할 것”이라며 “이 작품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추억과 사랑으로 남아 우리의 이야기가 영원히 이어질 바란다.”고 소망을 전했다.

작은 종이인형에 새겨진 민족의 혼은 이렇게 한 사람의 끈기와 사랑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중한 울림을 주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교훈으로 다가오고 있다.

/안상근 김파 기자



### 전망대

## 이기형 대장외룡, ‘7초 공격’과 연변축구의 대결



▲ 연변팀 이기형 감독 (오른쪽)

9월 23일, 슈퍼리그 진출을 노리는 중경동량축구구락부는 썬바도르 감독을 해임하고 한국적 감독 장외룡을 새 사령탑으로 임명했다. 이 결정은 9월 27일 오후 3시에 예정된 연변룡정커시안팀(이하 ‘연변팀’)과의 제 24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이루어졌다.

장외룡 감독은 한국 국가대표팀 좌측 수비수 출신으로 풍부한 감독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여러 구락부에서 감독을 역임했으며 특히 중국의 대련아르빈, 청도중흥, 중경력범, 하난건업 등 중국 구락부들 사이에서 ‘박태하 하학’이라는 호칭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현재의 중경동량팀(이하 ‘중경팀’)이나 연변팀은 그 시절의 중경력범이나 연변부덕이 아니며 또 축구 환경도 많이 변화했다. 중경팀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의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고 특히 홈장에서 남동지운에 0:2, 원정에서 정남감련에 1:3, 다시 홈에서 광둥광주표범과의 경기에서 패하고 광둥광주표범팀이 이길 경우 슈퍼리그 진출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감독과 선수들의 압력은 매우 크다.

중경팀은 연변팀과의 상호 전적에서 1승 2무 2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용병에 비해 국내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더 돋보인다. 23경기

에서 9골을 기록한 카리노(40년, 31세)보다 22경기에서 14골을 넣은 향여망(7년, 21세)의 인기가 더 높은 것이 이를 증명해준다. 또 한 수비선의 왕문현(2년), 원기룡(38년), 화효강(26년)도 모두 25세 이하로 밝은 전도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다. 리진전(21세, 8년), 류명사(21세, 24년), 오영강(19세, 27년), 백여도(18세, 30년), 장지웅(18세, 16년) 역시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잡은 상황이다.

수비역습형의 장외룡 감독과 같은 전술을 구사하는 이기형 감독간의 대결은 상위권 팀간의 점수 격차를 결정짓는 중요한 경기로 쌍방은 모두 조심스러운 태도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두 감독은 모두 최소한 비기는 전제하에서 승리를 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변팀의 경우, 황진비와 왕병이 결장한 가운데 홈에서 상해가정회룡을 이기고 도밍구까지 결장한 가운데 원정에서 섬서련합을 꺾으며 사기를 높였다. 반면 중경팀의 경우, 2연패와 페널티킥 실축으로 사기가 저하된 향여망을 비롯한 선수들이 짧은 시간내에 장외룡 감독의 ‘7초 공격’ 전술을 얼마나 잘 이해할 지 주목된다.(※ 7초 공격: 장외룡 감독이 2011년 청도중흥을 이끌던 당시 제시한 축구 전술로 선수들이 공을 차단한 후 7초 이내에 반격부터 시작하는 공격 방식.)

하버튼 연변팀 선수들이 한사람같이 똘똘 뭉쳐 기술형 연변축구로 이기형 감독의 전술사상을 충실히 체현한다면 급급한 감독 교체로 감독과 선수들 사이의 배합이 아직은 미숙 상태인 중경팀을 제압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국기자

## 2025 도문중로년국제축구대회 성료



9월 22일, 2025년 도문중로년국제축구대회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도문시체육장에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중로년 축구애호가들을 위해 60세이상과 70세이상 두개 소조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60세이상 조에는 한국의 원주월드 로팀과 서귀포팀, 중국의 연변의우팀, 연변빙우팀, 연변춘원로팀, 흑룡강팀, 길림시팀 등이 자리했다. 70세이상 조에는 한국의 서울장수팀, 서귀포팀, 덕산팀과 중국의 연변원로팀, 연변도문군팀, 심양팀 등이 출전했다.

로장 선수들은 비록 나이는 많지만 축구에 대한 열정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경기장에서 강한 경기 정신

과 활력을 보여주면서 젊은 선수들에 비해 체력은 떨어지나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관중들에게 멋진 경기를 선사했다.

경기 기간 동안 중한 양국의 선수들은 서로 축구 경험을 나누고 일상 속 즐거움 이야기들을 공유하며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했다. 도문시도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매력을 선보이며 외국 친구들을 위해 중국의 따뜻한 환대를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도문중로년국제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중로년 축구애호가들에게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국제적인 축구 문화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했다. /김파기자

## 연변대학 외국어학원, 이중 언어 융합으로 향촌 진흥에 기여

지난 여름방학 기간, 연변대학 외국어학원 ‘고향의 소리로 꿈 구축’ 표준어 보급 활동팀은 화룡시 진달래촌에서 가구별 조사를 진행하고 개산토소학교, 연길시 연집소학교 및 원길사회구역을 방문하여 이중 언어 문화 전파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이중 언어로 중국 이야기를 전달하고 향촌 발전에 에너지를 불어넣자’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활동팀은 농가를 방문하여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농업생산 현황, 생활 수요 및 실제 어려움, 표준어 인식 수준과 사용 빈도, 일상에서의 언어 장벽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했다. 이를 통해 일부 로년층 주민들이 표준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외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활동팀은 촌민위원회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생생한 자료를 수집하여 후속 작업의 탄탄한 기초를 다지며 ‘군중 속에서 나와 군중 속으로 들어간다’는 원칙을 실천했다. 또



한 농업정책 선전을 진행하며 ‘조사+선전+문화 전파’라는 세가지 연계 모델로 향촌 진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고등교육기관의 사회봉사 가능성을 확장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활동팀은 또 개산토소학교, 연길시 연집소학교 및 원길사회구역을 찾아

‘이중 언어로 중국 이야기 전하기’ 활동을 진행했다. 중국어와 영어 이중 언어로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 무형문화유산 전승, 민족영웅 이야기 등을 전달하여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중국 이야기가 학생들의 문화적 자신감을 높여주는 동시에 현지 문화가 해외로 나아가는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문화교

류를 통한 향촌 문화 진흥을 추진했다. 활동팀은 변경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표준어 보급을 통해 향촌 진흥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으며 ‘이중 언어로 중국 이야기를 전하고 중국의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매개를 통해 언어 보급과 문화 전파의 깊은 융합을 실현했다. 이번 활동은 지역 학생들의 표준어 수준 향상에 주력하고 대·중·소학교 사상정치교육의 일체화 발전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변대학 외국어학원은 ‘대학학원-대학생-소학생’을 잇는 3단계 표준어 보급 및 사상정치교육 연계 체계를 구축하였는데 앞으로도 ‘표준어+협력+사상정치교육’의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표준어 사업이 대·중·소학교 사상정치교육 일체화의 연결고리가 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향촌의 산업, 문화, 인재의 전면 진흥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화기자

